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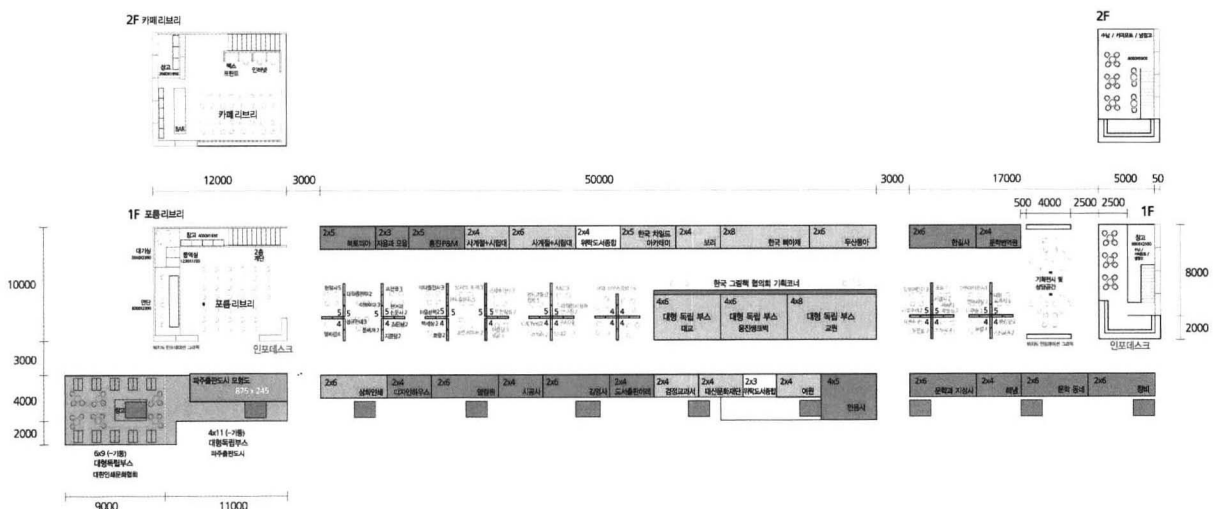
# 여백과 소통, 한국책이 스며드는 한국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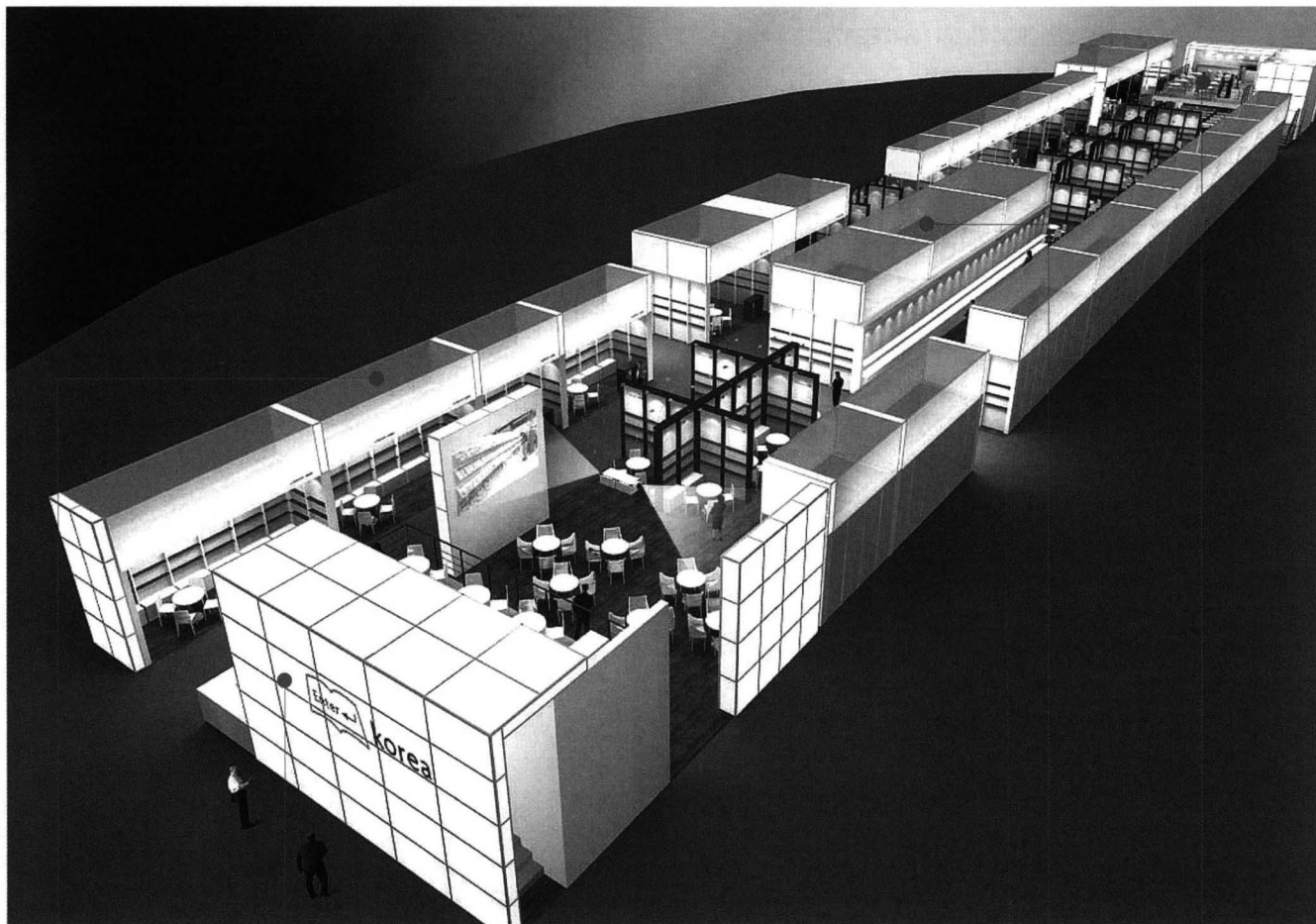
포럼 리브리, 5일간 33개 행사 줄이어  
 약 6,000종 10,000권, 한국책 99퍼센트 전시

한국은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1961년 제13회 때부터 매년 참가해 왔으며, 1998년 제50회 프랑크푸르트도서전부터는 국가관을 설치해 왔다.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 참가사 수나 전시 공간 규모가 5배가량 증가했다.

한국관은 출판사 및 출판 관련 업체 및 단체가 비즈니스 및 홍보 활동을 벌이는 공간이다. 각 출판사 및 단체가 주최하는 작가 강연, 대담, 출판기념회, 세미나, 낭독회,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이벤트 공간에서 도서전 기간 내내 쉬지 않고 열리게 되며, 한국의 출판·인쇄문화의 역사, 한국의 문화 전통에 관한 영상물을 방영하게 되고, 어린이도서 전문 출판사들이 공동 기획한 어린이 그림책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관 방문객들에게는 참가사들의 대표적인 도서 개요를 담은 목록, 참가 출판사 개요를 담은 디렉토리 등을 배포하게 된다. 한편 참가 출판사들에게는 저작권 상담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출판**

자료제공: 대한출판문화협회





■ 인포메이션 데스크 공간 information desk zone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 및 지원 인력이 상주하여 참가사 관계자, 외국 출판인, 관람객들의 문의에 응하고 편의를 돕는 곳이다. 그 기능상 한국관의 양측 주출입구 두 부분에 자리잡는다.

■ 카페 리브리

한국관 내 포럼 리브리 2층에 설치될 카페 리브리는 한국관 참가사들이 외국 출판사들과 상담하고 휴식하는 공간이며, 간단한 비즈니스센터 역할도 할 것이다.

■ 출판사 부스 공간 business zone

참가사들이 각자의 부스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펼치는 공간으로, 한국관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핵심이다. 다양한 규모의 부스들이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비즈니스 공간이 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포럼 리브리

낭독회, 사인회, 포럼, 인터뷰 등 대한출판문화협회 혹은 개별 출판사가 개최하는 행사가 열리는 공간이다.

한국관 행사 일정(포럼 리브리 H6.0 E927)

날짜	시간	행사명	주최자
1019	1030	한국관 개막식	대한출판문화협회
1019	1130	Korean Lunch Time	대한출판문화협회
1019	1300	대안으로서의 한지(가제)	디자인하우스
1019	1400	한독일 공동주최 그림전시 설명회	김영사
1019	1500	신화, 우리 내면의 거울	웅진씽크빅
1019	1600	김혜순, 황지우 시 낭독	문학과지성사
1019	1700	'이문열'	민음사
1020	1000	재독 작가 강유일 작품 낭독회	민음사
1020	1100	한국의 기독교 100년사 소개	한국기독교출판협회
1020	1200	작가 낭독회 '강석경'	KOGAF
1020	1300	'민통선 평화 기행' 독일어판 출간 기념회	창비
1020	1400	한국 창작 아동 문학 : 황선미	웅진씽크빅
1020	1500	문지의 아동도서 : 김서정, 김주연	문학과지성사
1020	1600	한국출판시장 현황과 전망	대한출판문화협회
1020	1700	칵테일리셉션	프랑크푸르트도서전
1021	1130	Korean Lunch Time	대한출판문화협회
1021	1300	작가 낭독회 '윤대녕', '하성란'	KOGAF
1021	1400	과학분야 노벨상과 출판 : 최재천	대한출판문화협회
1021	1500	오정희, 임철우 소설 낭독	문학과지성사
1021	1600	박이문의 <깨어진 말> 출판기념회	한국문학번역원
1021	1700	작가 낭독회 '사정인'	KOGAF
1022	1000	아름답고 푸른 지구를 위한 교육세미나 1차	아름답고 푸른 지구를 위한 교육연구소
1022	1100	문묘일무 시연 1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022	1200	김지하의 <중심의 괴로움> 출판기념회	한국문학번역원
1022	1300	아름답게 보는 눈을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	무한심성개발원
1022	1400	오규원의 <사랑의 감옥> 출판기념회	한국문학번역원
1022	1500	<삼국유사> 출판기념회	한국문학번역원
1022	1700	작가 낭독회 '공지영'	KOGAF
1023	1000	아름답고 푸른 지구를 위한 교육세미나 2차	아름답고 푸른 지구를 위한 교육연구소
1023	1100	한국의 예술/문화 도서	한국문학번역원
1023	1200	작가 낭독회 '이혜경'	KOGAF
1023	1300	문묘일무 시연 2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023	1400	작가 낭독회 '양귀자'	KOGAF

- 한국관 위치 : 6.0홀 E-927
- 한국관 규모 : 총 1,103m<sup>2</sup>
- 전체출품도서 : 약 6,000종 총 10,000부

# 치장보다 비즈니스 공간으로서 소통에 중점

한국관 디렉션한 최웅림 design seed 대표



최웅림 대표가 한국관을 설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주빈국관과 달리 한국관은 엄연히 비즈니스 공간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즈니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한국관 설계의 우선 과제였다.

"디자인에 기능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란하게 치장해 놓고 손님에게 우리 걸 자랑만 해서 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콘텐츠는 모두 책 속에 있는 것이고 한국관은 공간 구성 자체의 전문성으로 그 나라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관은 한국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여백과 흰색을 강조했고 전체적인 구조는 장터의 느낌을 살렸다. 나란히 두 개의 길을 내고 여유로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물건(책)을 구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를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인 카페 리브리는 따로 2층에 둬으로써 한국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소재의 사용에서도 디자이너의 철학이 엿보인다. 전시장 자체가 1주일 정도 사용하고 철거된다는 점을 감안해 비용도 저렴하고 환경파괴도 적은 천을 주로 사용한 것이다. 대신 반투명의 천을 통해 공간을 나누고 단절시키기보다 창호지처럼 서로 소통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주빈국의 주제가 '대화와 스킴'인 것처럼 한국관도 지나친 낯설음보다는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체적인 콘셉트를 정리하면 한국관은 콘텐츠, 즉 책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서 검약하고 기능적인 세련됨을 강조했습니다. 무의식중에 한국의 강한 자부심이 전해지게 함으로써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최 대표는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담당 송영만 상무의 요청으로 2002년 처음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을 방문했고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관을 설계했다. **한독**

취재\_신동섭 기자